

케어랩스, VC '데일리파트너스'에 투자...신규 사업 가속화

- 데일리금융그룹 자회사 데일리파트너스 유상증자 참여, 지분을 45% 확보
- VC의 네트워크 활용, 헬스케어 데이터 사업을 위한 유망 기업 발굴·시너지 기대

[2018-05-24 | 263700] 헬스케어 O2O 플랫폼 기업 케어랩스(대표 김동수)가 '데일리파트너스' 지분 투자를 통해 헬스케어 플랫폼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IT 기반 헬스케어·바이오 기업 발굴에 나선다.

케어랩스는 데일리금융그룹의 자회사인 데일리파트너스를 대상으로 50 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23 일 밝혔다. 이를 통해 케어랩스는 데일리파트너스의 지분을 45.5% 확보하게 되었다.

최근 데일리파트너스는 다년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1 위 자리를 유지해온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 이승호씨가 대표 이사로 취임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이다. 현재 이승호 대표이사를 필두로 유명 펀드매니저와 벤처캐피탈리스트가 합류하며 핀테크·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성장산업군 전문 벤처캐피탈로 도약하고 있다.

케어랩스는 단순한 지분투자에 그치지 않고, 데일리파트너스의 네트워크를 통해 헬스케어 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IT 기반 헬스케어·바이오 기업들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기반 O2O 기업 최초로 코스닥 직상장에 성공했던 케어랩스의 사업화 능력을 활용하면 가능성 있는 초기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어랩스 김동수 대표이사는 "이번 벤처캐피탈 투자를 통해 헬스케어와 IT 가 융합된 헬스케어 애널리틱스 사업 모델 구축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혁신하여 장기적인 회사의 그림을 완성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

[회사소개]

CARELABS

케어랩스는 2012년 설립된 헬스케어 O2O 솔루션 기업으로, 2018년 3월 국내 O2O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업계 1위 앱 서비스 '굿닥'·'바비톡' ▲병원 및 약국 운영 시스템(S/W) 솔루션 ▲헬스케어 분야 특화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국내 헬스케어 O2O 시장 내 독보적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 '병원 위치검색 - 접수 및 진료 - 처방전 결제'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며, 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부문의 토달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yello mobile

옐로모바일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B2C)와 맞춤형 솔루션(B2B)을 제공하는 종합 디지털 플랫폼 그룹이다.

핀테크, 애드테크, 헬스케어, O2O, 미디어커머스 등의 핵심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한다.

2012년 창립 이래,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에 발맞춰 변화를 선도해온 옐로모바일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보도자료 문의]**케어랩스 IR 팀**

강진규: 02-6929-2340 / kangjq@carelabs.co.kr

옐로모바일 홍보실

김유정: 010-3266-1332 / actionpr@yellomobile.com

이부연: 010-6505-9828 / by@yellomobile.com

채재선: 010-4510-6287 / chae@yellomobile.com